“中道, 위기의 종교 살릴 해결책”

고요한 소리
13일 ‘중도와 종교’ 주제 포럼

회주 활성 스님 발제 법문서
“중도로 맹신 벗어나야” 강조
전문학자들의 토론도 이어져
내년 마지막 3회 포럼 예정


고요한 소리는 10월 13일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주 활성 스님이 발제 법문을 설하고 있는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종교는 위기다. “‘속(俗)’이 ‘성(聖)’을 걱정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들은 위기의 종교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현재 종교 상황을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고요한 소리는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중도와 종교’를 주제로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 스님은 발제 법문을 통해 중도를 통해 이분법적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탐·진·치 삼독심을 현대 사회의 영역에 비유했다. 스님은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탐욕(貪欲)은 경제이며,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인 진에(瞋恚)는 정치,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우치(愚癡)는 종교라고 봤다.

활성 스님은 “맹목적 신심만을 추종하는 종교는 ‘치’다. 이는 인간을 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정·혜를 닦아야 하고 실천 수행하는 방법이 팔정도이며, 이는 곧 중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는 살리는 것”이라며 “이분법적 맹신에 젖은 위기의 종교를 벗어나게 해 이를 살리는 것이 중도 사상”이라고 설했다.

또한 활성 스님은 현대 종교들은 ‘교(敎)’를 ‘학(學)’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조상은 불교·유교·도교를 ‘동학’이라고 했고, 가톨릭을 ‘천주학’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예로 든 스님은 “종교를 배움으로 대했던 것”이라며 “배움으로 대하면 해가 될 일이 없다. 세상사 공부 아닌 것이 없듯이 심학(心學)으로 공부하면 모두가 스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 향상일로를 걷고 중도를 실천해 인간도, 신도, 자연도 살리길 바란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활성 스님의 법문 이후에는 전문 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석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명예교수는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통해 과학시대 격의불교론을 펼쳤다. 그는 정보기술시대에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대 심리학의 방법론을 차용해 불성이나 영성을 감성지능(EQ)처럼 지수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교수는 “불교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한다기보다 오히려 불교가 과학적 종교임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과학격의불교는 불교 교리의 과학적 해석의 단초를 열게 되며, 과학시대의 미래지향적 종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발표한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종교와 종교학은 위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 심층적 이해가 강조돼야 한다고 봤다.

이정배 목사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에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해 “종교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영성을 키우라”고 충고했다.

한편, 고요한 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시작한 중도포럼은 총 3회로 기획됐으며, 내년 마지막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韓日전통무예, 골굴사서 함께 경험해요

10월 27~28일 ‘제16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개최

경주 골굴사가 한국과 일본의 전통무예를 함께 체험하는 전통무예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7~28일 경내 선무도대학 등에서 ‘제16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및 제5회 한·일 전통무예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 호국영령과 호의승군 위령 수륙재를 시작으로 산사예술공연, 무예대회와 28일 선무도 승단심사 등으로 이어진다.

골굴사는 원효성사 열반성지로 의승군을 기리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인 수륙재서는 양국 참가선수단이 동참해 전몰영가를 천도하며 일본의 침략사를 인식하고 참회 및 화해를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1시부터 산사예술공연과 2시부터 무예대회가 열린다. 전통무예대회서는 한국전통무예총연맹 산하 택견, 24반무예, 기천문, 무의단공, 선무도 등이 선보인다.

한일 전통무예교류대회서는 일본 전통무예 가라데(쇼토칸, 소림류, 고주류), 아이키도, 한무도, ITF태권도 등 6개 종목이 시연된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각 무예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시연을 하며 91세의 쇼토칸 가라데의 이와모토 원로사범이 시범을 보인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무는 예로부터 국가 방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개인수행의 방편이었다”며 “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우호증진하고 불자들이 심신단련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와다 고우지 일본무도 친선사절단장도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에 감사하다. 무도로 한일 친선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054)744-1689

노덕현 기자

11월 5일부터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체류 및 방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들을 비롯해 전국 39곳에서 1박2일 프로그램 2만원, 당일형 프로그램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당일형’은 산사에서 2~3시간 동안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1박2일’은 사찰에 머물며 참선·108배·운력·소금만다라·108염주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체험형과 예불·공양·사찰예절교육 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휴식형으로 나뉜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주간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일부 사찰은 일본어와 중국어, 불어 진행도 가능하다. (02)2031-2000(템플스테이 홍보관)

윤호섭 기자

Festival of Martial Arts & Temple Culture
화랑과 승군의 후예
骨寺
제16회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제5회 한·일 전통무예교류대회
The 16th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Competition
The 5th Korean-Japanse Traditional Martial Arts Competition of Friendship

2018.10.27(토)~28(일)
장소 : 골굴사 선무도대학
수 륙 재 10월 27일 10시 (대적광전)
산사예술공연 10월 27일 13시 (선무도대학)
무예대회 10월 27일 14시 (선무도대학)
선무도 승단심사 10월 28일 08시 30분
문 의 054-744-1689 www.golgulsa.com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경상북도·경주시
(주)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주)다본금속·(주)대일조선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사)세계선무도총연맹
한국전통무예총연맹
Golgulsa, Headquarters of Sunmudo
주최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주관 (사)한국전통무예총연맹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⑮

지몽 스님 서울시립병원 서북병원 호스피스영적돌봄가

“종단 차원의 호스피스 장려책 필요”


함께 임종을 준비하는 환우와 기도를 올린 지몽 스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가 지몽 스님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스님이 사회운동보다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활동이다. 스님은 명상심리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죽음과 유족의 심리에 관심이 있어 생사문화를 공부했다.

이후 울산 마하보디교육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들었다.

“저는 청소년시절 난치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였기에 환자가 겪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공포·불안을 조금은 경험했어요. 죽음은 항상 나에게서는 화두였습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은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든 시간이 길지 않기에 보람보다 항상 부족함에 아쉬움이 더한다고 했다.

스님은 “한번은 불자님이라고 알고 방문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다른 환자분과 이야기하고 기도한적이 있다”며 “그 환자분이 거부하시지를 않으셨는데 알고보니 병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던 분이었다. 그 뒤로도 임종하실 때까지 저와 이야기하고 기도도 함께 했다. 현실에서 적지않은 불자분들이 병원 개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개종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은평구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은 투병중인 환자 중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임종 준비를 돕고 있다.

스님은 “종교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호스피스 전문가와 봉사자양성 과정을 대폭 지원하고 장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아직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서 임종을 맞으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불자님들을 위해 호스피스영적돌봄가로서 역량을 더욱더 키워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